

# 자연의 코딩과 오르가즘

feat: Cyber Sex & AI Sex 등장전까지

현재 세계 성관련 시장은 \$186B, 2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일전에 글을 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의 핵심인 고령 인구의 성문화, 선진국의 저출산과 미혼인구 급증등 인구요인과 이전 글의 비엔나 소세지와 같이 다양한 성적 취향과 개인 권리신장, 날아가는 기술에 대응하여 기어가는 법과 규제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X, 실리콘 벨리와 영국등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는 섹스로봇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소재 기술, 로봇공학, 의료기기 기술, 융복합 콘텐츠등을 아우르는 미래 4차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는 국제 섹스 로봇 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Love and Sex with Robots, LSR)는 우여곡절 끝에 4차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꾸준히 학술 논문집을 내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개최된 4차 학회에서는 섹스 로봇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원격 자위기구, 지능형 섹스 기구 등의 문제까지 다뤘다. 섹스 공학이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만, 성 산업의 발전과 함께 AI와 로봇공학이 수렴되는 미래의 성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창합니다. 미래의 성문화...하하하

이렇게 성관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한국사회는 무한한 성관련 시장을 터부시하고 음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미혼인구의 증가와 함께 성과 관련된 범죄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고리타분한 성문화마저 공개된 자리에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하나의 4차 문화 산업으로 키워나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다모양에서 성과 관련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길어질 것 같아 나눠 쓰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정말 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죠....자 그럼 짧게 짧게 쓰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가 아닌 서로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예의를 지키며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대한성의학회와 구글 스콜라 논문 검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독자가 남자가 다수이니 남자 이야기부터~~일단 썰을 풀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욕”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고, 남자 여자의 “성적욕구 처리”에 대한 자연의 코딩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단순해서 언제나 성욕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실제 자극이 오면 성적 욕구가 자신이 끌어낼 수 있을 최대치까지 에너지를 끌어(끌어?) 올리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진 본능으로, 기회만 생기면 내 DNA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적응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여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신체가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배란기)와, 임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시기(생리기)로 크게 구분됩니다. 내것과 상대방 DNA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반적

으로 가임기에 성적 욕구가 상승하지만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의식 영역'에서 성욕은 증가하고 표면적으로 이성에게 성적 매력이 느껴지게 피부가 좋아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자극이 여성의 뇌가 알지 못하면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성욕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짧게 한겁니다. 정리하면 남자는 언제나 내 씨를 뿌리기 위해 건드리면 폭발기(폭발)할 준비가 되어있는 성욕을 가지고 에너지를 항상 최대로 충전합니다. 반면 여자도 좋은 DNA를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씨를 준비하되 성욕이 겉으로 보이지 않고 외모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나의 변화를 감지하는 DNA를 가진 수컷으로 하여금 자극을 유도합니다. 여성은 배란이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된 수컷을 선택할 수 있지요. 가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럽다...중학생때 그녀석...지금은 뭐하러나....암튼~

이런 성욕차이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성적 욕구 처리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남자는 성적 욕구가 발생하면 뇌에서 각성하는 동시에 신체적 반응으로 발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발기를 동반한 각성단계에서 진행(go)할지 중단(stop)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스톱하면 발기는 사그라 들고, 고(go)하면 사정을 통한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로 인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욕구-각성&발기-go or stop-사정&만족감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반면 여성은 성적 욕구가 무의식 중에 생리주기에 따라 증가하거나 정신적 교감,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욕구가 늘어나면 뇌에서 '각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욕구가 올라가 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질을 포함한 신체의 순환작용이 발생하여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어 성적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만족감에는 신체적 만족감 뿐만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포함하여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오르가즘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행위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즉 남자는 목표를 성취하고 현자 타임이 지나면 얼마 지나 다시 사이클을 돌릴 수 있지만, 여자는 멀티 오르가즘 단계까지 지나면 통증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효율적 섭리로 이성의 DNA가 필요한 양만 얻어지면(한번에 수천~수천만 마리의 올챙이) 추가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을 생각됩니다. 남자는 한주기에 일반적으로 한 개만 나오니, 다양한 DNA와 유전적 결합을 위한 본능적 "자연의 코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코딩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성욕 처리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 평생시 노후 DNA처리 차이도 발생합니다. 남자에게 몽정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항상 생생한 올챙이를 몸안에 저장하고 한물 지나간 올챙이를 배출해서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싱싱한 난자를 몸안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배출하는 메카니즘은 동일하지만, 숫자의 차이로 규칙적 생리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였고...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신체적 차이를 20세기 뇌과학이 발전하며, 인간의 성적 즐거움은 뇌의 '쾌감중추'가 받아들이는 다양한 감각(시각, 청각, 촉각등등)에 의존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오르가즘 시대'가 도래하며, 다양한 변종의 도달법을 대중들에게 도전해보도록 제안합니다. 변하지 않는 본능에게 과학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오르가즘을 얻을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간 성욕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오르가즘일까요? 연구에 의하면 몽정을 하면서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이때 얻어진 쾌감은 허탈한 “긴장 이완”의 본능적 현상입니다. 성욕이 원하는건 오르가즘이 아닌 DNA를 널리 전파하는 흥인간이지만, 흥인을 포기하면 최종 목표는 오르가즘이되고 상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판매 지점 역시 오르가즘이 된 것입니다. 성욕은 오르가즘이 목표가 아닌데 세상의 타겟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일부 동의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쾌락만 추구하는 오르가즘도 있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오르가즘을 목표로 하는 섹스토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인도회사를 차리고 국제무역을 주도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시간 항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무 튜브 같은 것에 바람이나 물을 넣어 사람의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 끌어안고 자던 더치 돌(Dutch doll)도 있고, 한국 민화의 대가이신 신윤복 화백의 춘화나 서양의 누드화, 인도의 카마수트라와 같은 책들에서도 시각 교보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보재는 영상기술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 시각이나 촉각 자극에 기초하던 일차원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차원적인 형태에서 진화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시각과 청각을 결합한 영상기술의 발달로 두가지 형태 자극이 결합된 공감각적 영상물로 대중들에게 소개되면서 영화, 포르노 등의 영상산업의 전성기를 90년도 인터넷 발달 전까지 구가하였습니다.(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박람회할 정도로 활발합니다) 고마워요~누나들 도움으로 잘 컸어요~~

하지만 영상산업은 영상물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의해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정보나 자극의 흐름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발된 것보다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에서 출발하다 보니, 영상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이 응용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대화형 기술들을 기존의 방법에 결합을 시도하고 영상물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토이들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Interactive 형태의 다양한 주문자 생산 방식의 영상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의 포르노 배우라는 직업은 이제 성적인 영상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BJ나 인플루언서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과 관련된 직업군을 만들었습니다.(물론 다른 형태의 BJ와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만, 일부 성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시마켄 형님도 좋아하지만 야식이님, 도랏맨님도 무척 좋아합니다.

또한 영상물이 보고 듣는 두가지 감각의 결합이라면, 섹스토이는 모양과 크기가 중시되다가, 모터가 결합되어 모양+크기+진동 세가지 요소가 결합된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핸들과 좌석에 적용된 모터의 진동을 가미하여 소위 ‘햅틱(heptic)’이라는 개념까지 차용되어 파트너 또는 본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더욱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리토리스 흡입형 제품들이 개발되고, 흡입 기능이 추가되면서 성행위시 상대방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자극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공청소기 고마워요....

최근에는 질 안에서 커지는 바이브레이터, 뜨거워지는 딜도. 스마트폰 앱에 따라 진동하는 딜도, 케겔운동기 등이 출시됐고, 원격 자위 기구 및 앱이 개발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서로 보며 자위함으로써 주말부부 섹스리스 문제를 햅틱 기술과 영상전송 기술로

해결해주는 원격섹스를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말부부만 쓰는게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기술만 탓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상현실(VR)에 연동해서 콘텐츠를 제한된 환경을 넘어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AI 인식기술을 통해 영상 속 주인공의 신음소리나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속도가 바뀌는 자위기구도 나왔으며, 3D 프린터로 맞춤형 섹스토이를 만들어주는 회사도 등장한건 이미 고리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문제이지 현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말그대로 신윤복 선생님의 춘화도 프로프트 몇 개로 AI가 그려주고, Chat GPT와 AI,VR을 결합하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와 주인공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깐요. 고마워요 엔비디아~~

물론 재료공학의 발달로 상상력에 기인한 다양한 섹스토이의 형태적 발전에 정교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사람의 피부와 같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라텍스 소재가 적극적으로 토이에 적용되고 실물 크기 인형인 '리얼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리니어 모터등의 등장으로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상품과 저소음 고진동, 저전력 기술 등이 토이 산업 전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얼돌에 토이상품이 결합된 다양한 제품이 출시했거나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오르기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섹스토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SNS이나 박사방을 통한 N번방 사건부터, 마약과 결합된 여러형태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기술을 탓하기 보단 무엇이 기술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이 저대로 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성교육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글에도 썼듯, 인간 성욕의 최종 목표는 오르기즘이 아닌 DNA 전파인데 무엇이 DNA 전파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DNA 전파가 힘들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지...물론 쾌락을 즐기기 위한 오르기즘도 있으니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오르기즘이나 자위를 하는 방법을 들어봤는지..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성교육은 현실에 맞는지...부족하면 그걸 집에서 교육하고 있는지...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장남이라 몽정을 경험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암튼 고민해봐야 합니다만 그런 얘기하면 지루해지니 그건 댓글로 독자분들이 토론하시죠.

다음번 글에는 Cyber Sex & AI Sex와 성문화에 대해 썰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당직때 공부하는 심정으로 검색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비록 산부인과라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것도 있지만, 최근 기술을 남극 시골에서 따라가기 벅차네요...암튼 굿럭~~여러분~~오늘 밤 잘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모두 비밀폴더나 나만의 그녀를 만나러 가시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여러문 곳 나잇~! 아니다...해피 나잇???하하하 뭐 그렇다구요~~~